

국가인권정책(NAP) 독소조항반대

제67차 총회 제4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임웅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4회 임원회가 지난 8월 30일(목) 오전 11시 새기전교회(담임 신재영 목사)에서 열려 정부의 차별금지법 국무회의 기습통과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여름철 각종 수련회를 은혜기운에 마치고 활동하기 좋은 수학의 계절을 맞아 더욱 복음전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국가인권정책 독소조항에 반대하며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재무 이은승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이경진 목사의 기도,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의 설교 및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이날 레 6:12-13, 레 9:22-24 말씀을 본문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폭염 가운데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각종 여름 행사로 분주한 일정을 보낸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알



찬 열매를 거두는 수학의 계절이 될 것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축복했다.

엄기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의장 임웅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 사항이 이어졌다.

이어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무보고사항으로 제6회 청소년연합수련회 개최, 2018 전국신학생 연합개강 수련회 개최, 전국여교역지국 하계수련회 개최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선교사가입 청원, 교역자은퇴 보고, 교회폐쇄 청원 등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인천지방회 일부 회원 타지방회로 전출전과 관련된 수제 도움요청건, 제67차 총회 2회 실행위원회 준비 사항 등을 점검했다.



목회대학원 2018년도 2학기 개강예배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해 헌신 다짐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목회대학원 2018년도 2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9월 3일(월) 오전 11시 목대원 강당에서 드려져 사역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원우회장 박응진 원우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목회대학원 교수, 교단 경증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 받아 나신 사역자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므로 영적진장에서 미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전하고 "믿음을 굳게하여 사탄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신입생들과 신학생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원우회 부회장 김진숙

전도사의 헌금기도, 경증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개강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프루도초장은
바람을
막아
안기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도다...”(히 11:32~40)

조용묵 목사

어떤 종교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종교의 창시자나 교리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계시하고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모범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리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약한 사람들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활동 무대 그리고 역할은 각기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은 모두 전쟁 영웅들이나 그들이 획득한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지도록 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무사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제막식에서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박되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으나, 그들의 결박만 타버리고 세 사람은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날을, 선지자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칼날을,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겠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치

유일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여러 사례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겠다”는 것은 사립과 과부의 아들과 수년에 사는 여인의 어린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모두가 믿음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35절 후반부터 38절까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치면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지려고 하는 세력을 물리치거나 굴복시키고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상황을 역전시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억압과 손실과 고통, 결핍과 곤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고난을 기쁘게 감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잃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에게 기적적인 병 고침과 문제 해결과 승리 그리고 경영하는 일에 성공을 얻게 하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선하시고 진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마침내 유익하고 선한 결과가 되게 하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쓸거운 삶을 살아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홈페이지 : www.ucts.org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인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랑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대위 출범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 “나쁜 인권정책 바로잡기 위해 창립”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민비) 출범식이 지난 8월 27일(월) 국회의 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교계, 종교, 시민 단체가 참여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길원평 동성에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NAP 내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면서 “나쁜 인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비를 창립했다”고 전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정책 확산 등 NAP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출발 메시지를 전한 소강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도 “미국과 서구사회에선 잘못된 인권 때문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찌 된 일인지 남들이 버린 젠더 평등이라는 ‘뽀빠 쓰레기’를 받아들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교계 종교계 시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출범식으로, 2부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출범식에서는 국민의례, 개회사, 인사말, 출범메시지, 취지 및 정관 채택, 조직안 발표, 출범 선언과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로 진행됐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동성에 옹호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등이 전문가들이 나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 단체와 한국교회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 광역시 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교계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수호전주교인모임, 대한

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종교도 동참했다.

또한 동성에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 동성애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위원회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 그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들어서 지적하며 온 시민 단체들이 참여했다.

국민비는 정부가 NAP 가운데 악법과 독소조항을 철폐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단체, 시민 단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 할 예정이다.

신사참배 80주년 이상승배 일천만 회개기도성회

기독교부흥협의회, 주요교단·단체장 연석회의 가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윤보환 목사)는 지난 8월 23일(목) 오전 노보텔 엠버서더 서울 강남호텔에서 ‘신사참배 80주년 이상승배 일천만 회개기도성회 각 교단 및 주요단체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합동총회 부흥사회 대표

회장 박복우 목사의 사회와 경기총서무총장 김정일 목사의 기도, 김리교 감독회장 전명구 감독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대표회장 윤보환 목사의 사회로 회부를 처리했다. 이날 전명구 감독은 “을 해가 1938년 조선기독교의 신사참배 결의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교회와 이상승배회 회개운동에 대대적으로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신사참배 80주년 한국교회 이상승배 일천만 회개 기도성회”는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발의하여 오는 10월에 집회를 갖기로 하고 이번에 각 주요 단체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해리 해리스 미 대사, 한기총 내방

엄기호 대표회장, “남북관계·미북관계 잘 조율해 달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8월 21일(화)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한기총)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미 대사관 루시 장 정부공사참사관, 에밀리 유 국내정치담당 서기관과 한기총 서기 황덕광 목사 등이 배석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주한 미국대사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한다 4성 장군 출신으로 주한 미국대사에 임명된 것에는 현재 한반도의 안보부분이 강조된 것 같다. 미 대

사로서 현재 남북관계, 미북관계를 잘 조율해 나가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감사하다. 외교관으로 6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엄기호 대표회장과 해리 해리스 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진행 상황과 평화문제 한반도 안보 등에 대해서 대화했고, 엄기호 목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CTS JOY어린이영어합창단 전국으로 확대

교회 별로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전도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출석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 CTS기독교TV가 다음세대 전도를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CTS JOY어린이영어합창단>이 각 지역을 대표해 합창단을 운영할 운영교회의 담임목사님과 지휘자들을 초대해 합창단 운영자 교육 및 합창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해 새로운 어린이 전도의 도구로 교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7일, CTS 멀티미디어센터 지하 1층, CTS라디오JOY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 는 인천 내리감리교회, 부산 기장로교회 외 레 주아선교회, 송파 선한목자교회, 안양 성도침례교회, 안성 안성중앙교회, 구리새살침례교회 등 7개의 교회가 어린이 전도라는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모임을 기획한 담당이사는 ‘CTS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은 성경공부, 영어공부, 신나는 음악과 댄스를 접목한 어린이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훈육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전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귀한 전도도구로 쓰임 받길 원한다고 합창단 창단의 의를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CTS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은 미국에서 성경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심더비이>를 교재로 사용하며 여기에 영어교육, 합창과 안무교육 등을 접목해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기독교

적 세계관을 심어 주며, 지역교회에는 새로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창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창단을 맡고 있는 CTS라디오JOY 강명준 사장은 <CTS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그 운영의 목적이 있다며 계속해서 여러 지역교회에 <CTS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이 설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기연·한교총과 복귀연합 추진키로

한기총, 제29-5차 임원회의에서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8월 28일(목)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5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집명 결과 26명 참석, 14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징계위원회의 건으로 현 대표회장을 고소하여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은재 목사를 제명하자는 안건은 14명 찬성, 5명 반대로 통과되었다.

한국교회 연합복귀위원회의 건으로 위원장 이은재 목사, 위원 황덕광 목사, 안이영 목사, 이병순 목사, 이은은 목사가 임명되었음을 보고하고, “1. 한기연, 한교총과의 복귀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다. 2. 한기연과의 복귀연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현재 진행 중인 한기연과 한교총의 통합 추진 사항을 주시하기로 하다.”는 보고를 그대로 받



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공동회장에 김원남 목사(예장신교), 공동부회장에 정재진 목사(예장합동총신), 사무총장 서리에 윤덕남 목사(기독교시민연대)가 추가로 임명되었음을 보고했다.

한편, 911 수색구조단 이강우 대표의 라

오스 홍수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전체 일정 및 재정 사용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김상진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시편 15:1-2 잠언 19:12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회의는 김용도 목사(명예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장기부전 환자들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 홍보대사 위촉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8월 2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총재 이재일, 이하 354-H지구)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354-H지구는 지난 4년 간 지속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며 협회 내에서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해왔다. 이에 8월 24일, 새로운 총재가 취임하며 임원들과 함께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 2018-2019 지구임원 및 클럽4역 연수회’에서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54-H지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장기기증 캠페인 및 후원금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10개 시·군 56클럽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임 시 장기기증 홍보를 통하여 장기기증 등



목 신청을 받아 매분기마다 운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회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메일로 발송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함께 그동안 장기기증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임원에게 감사

패를 전달하고, 신임 임원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직전 총재인 임상철 총재와 장기기증 추진위원장이었던 송경희 씨에게 그동안 354-H지구 내에서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운동을 펼쳐준 것에 감사하며 감사패를 전달했고, 새로운 총재인 이재일 총재와 신임 장기기증추진위원장인 박명수 씨는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다양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354-H지구는 지난 2015년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정기지부(지부장 김미영)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지선바자회 및 체육대회를 통한 모금활동을 펼치며 총 32,312,000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휴양시설인 제주 리피의집을 지원해왔다.

가평기독교연합회, 가평군 조찬기도회 개최

나라와 민족… 이단퇴치 위해 기도

가평기독교연합회(회장 송흥섭 목사)이하 가기연)는 지난 9월 3일(월) 오전 7시 청평면 소재 나루컨벤션에서 가평군조찬기도회를 갖고 가평군내에 이단시설 건립 금지를 비롯해 한반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성기 목사가(가평로교회)의 사회로 드려진 1부예배는 가평조찬기도회 부위원장 장익봉 목사(청평로교회)의 기도, 가기연 서기 민현기 목사(예수사랑교회)의 성경봉독, 예장 통합피어선교회 서기 박유석 목사(테너)의 특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기감 직전감독 전용재 목사(한반도복색평화운동협의회 이사장)가 ‘여호와의 의지함이 해답입니다’란 제하로 말씀을 선포하고, 노용호 집사(가평군청 신우회)와 평

진회 목사(청대교회), 가기연 직전 총무 조재호 목사(우리교회), 예장 통합피어선교회 회장 김희신 목사(열린교회)가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안정과 성장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가평군 지도자들과 군발전, 군민 △가평기독교연합회의 부흥과 지역복음화 △동상에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단퇴치 등을 위해 특별기도 했다.

이어 가기연 회계 박선준 목사(가평기쁨교회)의 헌금기도, 가기연 총무 김성옥 목사(도대리교회)의 광고, 가평조찬기도회 위원장 조병전 목사(북성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가기연 부회장 이주형 목사(향사리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축하행사 시간에는 가기연 회장 송흥섭 목사(가평제일침례교회)

가 환영사를 전하고, 국제 ‘벗’ 문화예술도시개발협의회 상임고문 이철취 장로(더민주 가평포천당협의회위원장)과 제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영우 의원(자한당 가평포천당협의회위원장)이 축사를, <제31운동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기념제단 상임고문 원종문 목사(국제 ‘벗’ 문화예술도시개발협의회 이사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가평군수 김성기 집사(국제 ‘벗’ 문화예술도시개발협의회 자문위원장)와 김경호 의원(경기도 의회의원), 송기옥 집사(가평군 의회의장)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가기연 총무 김성옥 목사의 내빈소개 뒤 가기연 직전회장 조영구 목사(북성교회)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성, ‘2018 여름 설교 특강 & 클리닉’ 개최

신학과 강단의 선명한 만남을 통한 명쾌한 해답

말씀사람 성경설교클리닉(회장 송진석 목사, 사랑나루교회)은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안양 성경대학교 중생관에서 ‘2018 여름 설교 특강 & 클리닉’을 개최

했다.

1-2강은 송실대 권연경 교수가 갈라디아서 주해와 설교적 적용을 다룬 <육체의 욕망 성령의 욕망>, 그리고 3강은 성경대 오한철

교수가 형식의 변화를 원하는 설교자나 설교 초보를 위한 설교 워크숍인 <설교자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강의를 했다.

요교수는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지 않고 성경공부에도 대체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로마서의 축약판인 갈라디아서, 갈라디아교회의 상황을 비교로 규정했던 바울은 왜 이렇진 창의를 아닌 이뤄져야 할 ‘의의 소망’을 말했을까?”라며 “우리는 비교로 규정할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집구 속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

민족복음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찬기도회, 안보·경제·교회위기 타파위해 기도 당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8월 30일(목) 오전 7시 아산성결교회(담임 조이철 목사)에서 민족복음

화와 지역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고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

해, 이슬람집무 저지를 위해, 성평등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공동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기연 목사의 대표 기도, 고분 김소윤 감독의 설교, 고분 강상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에서 김소윤 목사는 시 94:1-5, 23 말씀을 본문으로 '약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일부 지도층이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안보위기, 경제위기, 교회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이 극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복음으로 단합하여 하나 되어 나가는 길 뿐"이라고 강조하고 "이때를 위하여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2부 보고회는 황기식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자문위원인 이명수 국회의원의 국정활동보고, 시의원 현인배 장로의 시정활동보고, 연합회장 온재현 목사(공동회장)와 바른인권위원회 위원장 장현원 목사(부회장) 상황보고 등이 이어졌다.

3부 기도회에서는 삼일회장 임용석 목사



의 사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회장 손혁 목사,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지도위원 최순식 목사, '이기연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총무 오세환 목사, '성평등 정책 반대를 위하여' 협동 총무 장현원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증경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

를 구한 것처럼 매일 조찬기도회로 모여 기도하여주시는 회원들과 국정 및 시정 현안을 보고하여주시는 이명수 국회의원과 현인배 시의원, 연합시업보고를 위하여 힘쓰는 연합회 대표회장 온재현 목사 등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격려한 뒤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부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심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하길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8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1박 2일 동안 강선산 캠프 리조트(전주)에서 월례회 및 आय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총무 최광영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회계 박종서 목사(천안천원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암곡교회)의 설교,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 좋은나무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표 목사는 '심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심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



하여 목회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부 월례회는 회장 유관영 목사의 진행으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이후 강선산

등반과 저녁식사를 가졌다. 이번 1박 2일의 일정에 참여한 목회자와 사모들은 आय회를 통해 원과 회복을 얻고 영적 새인으로 무장하여 목회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8월 28일(화) 오전 11시 물래동산교회(담임 옥경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부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사회로 재무회계 박영욱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정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마 11:2-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침례요한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신임을 본받아 어떠한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촉구하였다.

설교 후 통성으로 기도한 후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 교회)의 헌금기도, 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재무회계 박영욱 목사의 하계수양회 결산 보고와 기타 회무를 진행하고, 물래동산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식사를 나누며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끽하며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8월 28일(화) 경기도 포천 평강랜드에서 야외예배 및 आय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끽하며 지방회 목회자들의 연합과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신근철 목사(구리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와 증경회장 임흥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눅 16:10 말씀을 본문으로 '훈련의 결과'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신 분과 받은 자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좋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목회하는 것이고 또한 성



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며 "크면 작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고 전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회계 김현숙 목사(대리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임흥택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평강랜드식당에 준비된 산채비빔밥

으로 오찬을 나누고 식물원을 돌며 성경에 나오는 쥐엄열매와 합화채 등 식물들을 구경하고 펼쳐진 잔디 위로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표현 비둘기강 폭포에 도착하여 폭포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하늘다리 위로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목회자부부 하계수양회 갖고 영적 부흥 다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식 목사)는 지난 8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1박 2일 동안 포항 힐리랜드 영성수양관에서 목회자부부 하계수양회를 가졌다.

회장 이성식 목사(샘빛교회)는 개회인사를 통해 "평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쉼과 휴식을 갖자"며 "이번 하계수양회를 통해 목회와 사명을 넘쳐히 감당해 내는 영적 힘을 재충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첫 날 저녁은 천교부장 김진희 목사 부부가 정성껏 준비한 야외 바비큐 파티를 통해 애찬을 나누고, 선배목사들의 목회 경험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해변 돌레길을 산책하며 서로 격려하고 점심식사 후 근육연증으

로 입원 치료중인 김은수 목사를 병문안하여 함께 기도한 후 귀가하며 다음 월례회의 만남을 기약하였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목회자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8월 28일(화) 오전 11시 안동성곡교회(담임 강태진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정진화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와 서기 이항구 목사(주찬양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큰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5:9 말씀을 본문으로 한 '4차원의 영성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 생각을 통해 적용하라. 둘째, 믿음을 통해 적용하라. 셋째, 꿈을 통해 적용하라. 넷째, 마음을 통해 적용하라."고 전하며 "우리는 지금 동성애 반대 및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 발전과 정책위원회의 총회장과 임원을 위하여, 지방회 발전과 개교회 부흥 성장을 위하여,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회계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찬양교회)의 헌금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의 인도로 서기의 회원 점명과 회계의 재무 및 회계 보고를 받고 기타 안건으로 10월 지방회 야외 행사와 지방회 제직세미나 준비사항을 처리하고, 증경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어 안동성곡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장소를 옮겨 카페로 가서 시원한 팥빙수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진 것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①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④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⑤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생명의 말씀



김상웅 목사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 교단 중경총회장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믿음의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믿음의 행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믿음의 결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 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발을 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 11:1-3)

자’ 라든지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이며 의지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발이나 신념은 육신적이며 자신의 것이지만 믿음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겁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 6:12)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용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꿈도 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여!’ 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 실제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믿음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하여 용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습이나 전통과도 상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

여역하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바로 앞부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바라는 것들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실체)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없기에 바라보았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그 모습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 8:24)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였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나타난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믿음은 미래를 당겨서 현실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

느니라”(2절)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진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이는 믿음의 영웅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열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대로 믿고 나갔을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보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열조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와 백성을 출애굽 시켰으며,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 몰래 돌 하나를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열조들의 믿음의 결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도 믿음의 열조들처럼 믿음의 결과를 현실로 이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믿는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3절)는 말씀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 1:3)로 시작되는 천지창조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의 질서를 세우고 보기 좋게 배치하며 완성하고 장식하신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기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데, 아직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계 22:12-13)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다 보면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속히 오리랴’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 한다. 아마도 편향된 인권만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사회적 보편적 약자들은 고려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인물은 국가 인권 분야에서, 최고 공직자로써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참 인권’ 전문가에 머물라 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다운, 천부적 인권과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책무이며, 그런 식견을 가진 인물이 인권 최고 기관의 책임자로 어울리지 않을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적절성을 다루는 국회 청문회에 바란다. 특정 분야에 편향되고 경도(傾倒)된 인물을 가려 내서, 국가 인권 정책과 행정이 바른 길로 가도록 적합한 인물을 선별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국회청문회의 역할이 아닌가.

또 이것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책임이 아닌가. 정부는 편향된 인사를 내정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바른 선출을 해줄 것을 바라며,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동 정

트럼프, 수백 명 사인 성경책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수백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고 이들이 서명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 지난 8월 2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의 영적 조연자인 파울라 화이트 목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이 이 성경책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루터대, 자율개신대학'에 선정



루터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대학기부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신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지난 8월 23일(목) 밝혔다. 루터대학교 권득철 총장은 “지난 3년간 루터대학교의 구성원들은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왔다. 이 기쁨을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 취임



홀트아동복지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제 20대 회장에 김호현 기획경영실장이 선임됐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8월 3일(금)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호현 회장은 1983년 9월 입사해 지난 30년간 서울과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복지사업과 행정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기독 사학 신일고·대광고 신·편입생 모집



기독 명문사학인 서울 대광고(교장 김철경)와 신일고(교장 신병철)가 지난 8월 31일(금) 제1회 신대전(信大戰)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양교 재학생과 교사, 동문 2,000여명이 모여 축구 경기를 가졌으며 양교의 열띤 응원전이 이어졌다. 또한, 관현악반의 연주와 합창 등 친교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위원장으로 적절치 못하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다음 국가인권위원장(이하 국가인권위)으로, 당시 서울시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영에 씨를 내정하였다. 그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시민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최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일을 살펴보면, 최 내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에 올라온, “동성애 옹호자 최영에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

라는 내용에 보면, 최 후보자가 근무한 시기에 국가인권위는 유별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때 국어사전을 만드는 국립국어연구원과 교과서와 교육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에 압력 넣기, 청소년들에 대한 동성애 옹호 프로그램 만들기, 청소년을 각종 유해매체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게 만들었다. 아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친밀하게 알려주는 집중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고, 대학에서 동성애 영화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원인을 감별하

는 혈액 분진표에서 동성애 성접촉 여부를 빼게 하였고, 임신 학교에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제92조 폐지를 주장하고, 군 동성애자 인권 보호 등 그야말로 한국을 동성애 나라로 만들려는 데 학학(?) 공을 세울 때, 최 영에 내정자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최 내정자가 만들어 활동했던, 여성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동성애자의 권리 등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병중하게 만들어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는 데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작년 서울광장 동성애 퀴

어 축제에서도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이 없이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라는 식으로 동성애를 한껏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23일로 잡혀 있었으나 28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국회에서는 최 내정자의 이런 행태들에 대하여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하여, 최 내정자가 그냥 동성애 옹호운동이나 하게 내버려 두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임을 확실하게 알리게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동성애만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또 아양의 모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약자를 돕기 위해 모금하는 적십자회비를 지난 2012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ASSEMBLIES OF GO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독소조항 반대

〈국민기반 · 인권정책 ·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부 출범식 / 2부 토론회

○ 일시 : 2018. 8. 27 (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성일중 국회의원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려 500여 교계, 종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악법 소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불통(不通)으로 통과시켰다.

이 NAP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소지를 담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이것이 무산되었다. 이에 ‘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NAP에 그 내용들을 담고, 이를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되면 실제적으로 헌법개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여 NAP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의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져 나락에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기반 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민위)가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 단체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교계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등 타종교도 동참했다.

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 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전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 그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 온 시민 단체들이 참여했다.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이로써 종교, 시민, 학부모단체 등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교계 종교계 시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출범식으로, 2부는 토론회로 진행

국민위는 정부가 NAP 가운데 악법과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단체, 시민단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되었다. 출범식에는 국민연례, 개회선언, 인사말씀, 출범메시지, 취지 및 정관제약, 조직안 발표, 출범 선언과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장총 총무 구자우 목사의 사회로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예정합동 총회장 전계현 목사,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 성일중 의원, 이해훈 의원, 김진태 의원, 전희경 의원, 이연주 의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이진호 대표, 동반연 운영위원장 김원평 교수, 전국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총무 박요셉 목사,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총무단 김진호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 등이 각각 순서를 맡았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세수동중앙병원 연임장 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 발제는 동반연 운영위원장 김원평 교수,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송실대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가 맡고, 패널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차현연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 국민을 위한 대안 이현영 대표가 열린 토론을 펼쳤다.

국민위는 정부가 NAP 가운데 악법과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단체, 시민단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방목적이고 조국의 미래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잘못된 인권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는 지리가 되었다.

나쁜인권NO! 독소조항OUT! 동성애옹호NO! 차별금지법OUT!

주최 :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성일중 국회의원

〈문의처〉

공동준비위원장 : 구자우 목사, 박요셉 목사, 김원평 교수

사무국장 : 010-6629-2469

《출범 취지문》

오늘 우리는 편향적이고 국민기반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정책)을 공표한 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모였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연합하여 비상한 각오로 ‘국민기반 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국민위)’를 창립하게 되었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인권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위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인단체, 법조인단체 등 전국적으로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여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국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변 인권정책은 그 규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작년에 개헌안 발의를 통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고 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했니까, 이번에는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성평등 정책을 밀어 붙이고 결국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권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 8. 27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전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500여 단체

긴급진단

장헌일 원장 // 행정학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 되어야”

최근 8월 6일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안이 김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의원(조성식, 정준숙, 권마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해린, 최인호, 진선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 제365조의 3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신실하고 제55조를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고 부칙에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예고 안건으로 8월 6일부터 예고 마감일 8월 17일 현재 타 법안 입법 예고되는 아래적으로 반대예견이 2500건이 넘었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것이 많아 대다수가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총307개 중 기독교251개, 불교125개, 천주교105개, 원불교16개, 기타10개소, 보건복지부 통계) 이중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50%가 넘으며 법인 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교회에 담당하는 복지영역은 80%가 훨씬 넘으며 주요 사업으로 노년, 아동, 여성, 장애인, 저소득, 노숙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전 분야에 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충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은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포교활동을 시설 운영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종교 분리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판이 제기 될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 준 어머니”라고 사회복지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십자가로 대표되는 자기 희생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 따른 종교사회사업(religious social work)이란 용어가 사회복지학사전에도 “인생을 갖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으로서 갖는 가치관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에 대한 전인적 인간 존엄의 강령함이 오랜 역사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기여와 봉사 섬김을 해 오고 있으며 종사자들 역시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랑과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행위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에 위배된 법률적 행위를 야기시키는 역차별을 갖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2011년에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들은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맞는 일반복지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과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런 기회에 한국교회에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교회로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여 각 종교시설의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의 실천 정신을 보고 종교사회복지법인을 더욱 더 신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온석주간보호센터 개원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총회(총회장 이진호 목사) 직영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백성혁 목사)부설 온석주간보호센터 개원예배를 8월 31일(금) 오전 11시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로 96번길 79 소재 중앙관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이진호 총회장, 류금순 이사장, 총회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셨다.

이날 개원예배에는 신동권 교화처장의 사회로 최영순 이사의 대표기도, 이사장 류금순 목사가 록 22장 26-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총회장 이진호목사와 백군기 용인시장의 축사 후에 김형호 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서 총장 백성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입교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고혈압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억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떫은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잼 또는 샐러드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농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504076-02-072136 (예금주 김갑신)

구입문의 010-3621-4853

환돌 아로니아 농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암동 8길 38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희 결혼114는 하나님께 이 사업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던 중 미혼 남,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것이 국내 선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감동을 받고 전국에서 고생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을 지사장님으로 모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사장 자격

-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사모님 ● 장로님, 집사님 ● 믿음의 형제, 자매

혜택

등록비 54만원(부가세별도) : 고객들이 부담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이상형을 직접 찾아서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음

- 남녀 매칭 문제 본사에서 전담 - 지사에서는 회원 등록만 전담
- 각 지역별 독점권 부여
- 지사 블로그 제작 지원
- 결혼 미팅파티 행사 지원
- 전국 기독교인 회원 보유
- 본사 새로운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특전 : 본사에서 전국 각 지사로 매달 공유 수당 지급

지사 모집 지역

서울시	성동구, 용산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시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구시	지사 계약 완료
인천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시	서구, 남동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울산시	중동구, 남구, 북구
세종시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상담진행중), 남양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상담진행중), 광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상담진행중), 원주시
충북	충주시,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공주시(상담진행중)
전남	목포시(상담진행중), 광양시(상담진행중), 순천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경북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양산시(상담진행중), 김해시(지사계약완료),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창군
제주도	제주시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대표회장

상임회장

사무총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안홍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후원계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충남도대표)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이심훈(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김원진 목사

황기식 목사

노선웅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임정대 목사

차홍식 목사

김기형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이덕희 목사

홍석용 목사

길성권 목사

김주섭 목사

정병한 목사

김형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재두 목사

박성화 목사

이기언 목사

장현원 목사

홍석용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안홍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회원 아산시 350교회 교역자

박성민 목사

박성화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권필희 목사

정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이의중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도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805937-04-007183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8학년도 산·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인도 홍수 피해지역에 긴급구호 실시

한국월드비전, 모기장 등 생필품 및 위생키트 전달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극심한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은 인도 케랄라 주의 지역 이재민을 위해 지난 8월 28일(화) 10만 불 규모의 긴급구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 남부에 위치한 케랄라 주는 지난 8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강과 댐이 범람해 100만 명의 최대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약 454명이 사망하고, 7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국제월드비전은 인도 홍수 피해 규모를 월드비전 기준 최고 재난대응단계인 '카테고리 III(전 세계가 대처해야 할 엄청난 규모의 재난)'로 선포하고, 향후 90일간 긴급 대응과 15개월간 재건 복구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한국월드비전은 지난 8월 28일 인도월드비전을 통해 약 10만 불 규모의 구호 물품과 위생키트를 지원했다. 구호 물품은 담요, 모기장, 식기 등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키트(비누, 생리대, 수건, 치약 등)도 함께 전달한다.

한편, 현지에서는 인도월드비전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8개 지역을 우선으로 식량 및 위생키트를 보급하고, 심리적 충격을 받은 아동을 위해 아동심리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22회 장기기증의 날 기념 걷기대회

장기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화생명(주) 후원하는 2018 장기기증의 날 행사가 지난 9월 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올림픽공원 피크닉 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생명나눔의 주인공인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 생존자 신장기증인, 신장이식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후원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해 '초록리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장기기증의 날은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장기를 기증한 이들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출발해 올해 22회째를 맞이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장기기증 홍보대사인 스타 트레이너 아놀드 홍이 직접 무대에 올라 걷기대회에 앞서 준비 운동을 지도했다.

이번 5km의 걷기 코스를 밟은 이들에게는 저마다 생명나눔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떠나간 가족이 가장 그리워진다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 및 본부를 통해 생명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순수 신장기증인과 그들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신장이식인들,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장기기증의 소중한 의미를 직접 전하기 위해 참가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까지 저마다 생명나눔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주인공들이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피크닉광장에는 다채로운 생명나눔 조형물 및 포토존이 설치 및 운영됐다. 특히 생명을 나누고 먼저 세상을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들의 이름과 생명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신장기증

인의 이름 72개를 손수 새겨놓은 조형물이 설치됐다. 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은 "이날, 올림픽공원을 찾은 모든 이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간 기증인들의 고귀한 정신과 사랑을 기리고, 사후에 생명을 나누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되새길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쁩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성취하라’

부교역자 대상 기획목회세미나 개최



한국교회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은 지난 9월 3일(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부교역자의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성취하라'는 주제로 '14-2차 기획목회세미나'를 갖고 부교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교회에 도움이 되며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아름길사랑교회)는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중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잊혀진 사람이 됐지만 갈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서 "부교역자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바탕으로 때를 기다리며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에서 서길원 목사(상계김리교회)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목회자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했으며, 김형환 대표는 "좋은 교회에서 옳은 교사로 거듭나는 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목회자들이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 김기배 교수는 현 시대에 있어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디어 제작 방법과 이를 목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울매일신문 종교부 차장인 유현우 기사는 효과적인 교회 홍보 방법 및 교회와 관련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세미나 후 참석했던 부교역자들이 2주간 목회현장에서 실천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평가를 통한 사상을 계화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NEVER GIVE UP!

기아대책-한국GM한마음재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노인, 장애인을 위한 방문요양 전문사회적 기업인 A사는 차량을 구할 수 없어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에 왔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없어 직원들은 항상 마음을 졸이며 일해 왔다.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B 기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교육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원,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중교통으로 버려다줄 때 안타까웠다.

공익을 위해 일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업무용 차량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 기업들이 심사를 통해 자동차를 지원받게 된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8월 28일(화)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기아대책 사옥에서 기아대책, 한국지엠 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웨비나 NEVER GIVE UP!(네버 기브업) 캠페인'을 위한 차량 기증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웨비나 NEVER GIVE UP! 캠페인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회적 기업, 복지기관과 저소득 가정 등에 자동차 1천 대가 팔릴 때마다 1대를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기아대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차량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웨비나 스폰서 차량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약자를 돌아보는 것을 중점으로 삼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캠페인의 협력 기관으로서 그간 차량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회적 기업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지나 사무총장은 "한국지엠 재단은 2005년 재단 설립 이래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2대의 차량을 기증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왔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차량이 꼭 필요한 사회적 기업들에게 차량이 지원되고 지역사회의 나눔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 4:14), 사명감 일깨워

조용묵 목사,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막중한 사명과 책임 강조

전국여교역자국 2018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한순남 목사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한순남 목사) 2018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가 지난 8월 27일(월)~28일(화) 1박 2일간 은혜외전리교회 전원성전 및 석도 일대에서 열려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고 다원주의와 동성애가 기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온 이 때를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을 재확인하고 사랑과 인내, 열정과 희생으로 땅 끝까지의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교역자들은 여러 순서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금 우리 나라와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바른 상황 인식과 함께 시대적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져 교회지도자답게 처신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는 첫날인 27일(월) 오후 2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하계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교단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 자문 신동숙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강민석 기독교방송국 PD의 특송,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은혜외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묵 목사는 첫날 개회예배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참석한 교역자들을 격려했다.

조용묵 목사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상실케 하는 역사와 체제와 이념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 및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성경적이며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해치는 용어들의 해설과 개념 정리를 통해 바른 이해와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이어서 조 목사는 교회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성경적인 역사관과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미나는 교단 총회장 임용재 목사를 강사로 열려 말씀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새롭게 헌신할 것을 작정하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진 제백기도회는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대림벤엘교회 당회장)를 강사로 말씀으로 은혜받고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적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이후 회원들은 여교역자로서 목회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시역의 모습들을 강연을 통해서도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었다.



설교
조용묵 목사
정책위원장



특강
임용재 목사
총회장



특강
정부용 목사
전 부총회장·고문



대표기도
신동숙 목사
자문



사회
김바울 목사
차장



제막기도
김종애 목사
사회부장



제막기도
한순남 목사
홍보부장



사회
안선자 목사
정보부장



대표기도
조병희 목사
섬사부장



헌금기도
최정희 목사
예배부장



둘째날 아침 폐회예배에서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느라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교역자국 회원들은 시간마다 설교와 특강을 통해 사명감을 일깨웠으며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아 목양지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 정직한 영을 세

롭게 하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둘째날 오전 폐회예배를 마친 회원들은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에서 정성과 헌신을 다해 준비한 석도도 여행 일정에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람이 가득한 회원 간의 친교의 시간을 갖고 저

녁 무렵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지의 목양지로 향했다.



전국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단산하에 속한 모든 여교역자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여교역자국을 은혜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님과 총회장 임용재 목사님 그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3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
자문 신동숙 목사
국장 한순남 목사
차장 김바울 목사
외 임원·전국지부장 올림



목양
포커스

각 교단들의 9월 총회에 바란다

각 교단 총회에서 교단 안의 현안에 대한 것도 성실히 논의하고 결정하면서도,
이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교단들과 침례교 총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각 교단들은 이 기간 동안에 교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교단은 총신대 관련 이사 문제를 비롯하여 헌법 개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예장 통합교단은 동성애 문제, 명성교회 문제, 총회 기구 개혁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예장 대신(백석) 교단은 교단 명칭 사용이 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장 대신 교단은 백석 교단과의 통합과 범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교단의 복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된다.

기장 교단은 성 윤리 강령과 성폭력 예방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기침 교단은 규약개정안 처리가 관심사이다. 예장 고신 교단은 이단성 문제 인식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단 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바, 교단 안의 현안에 대한 것도 성실히 논의하고 결정하면서도, 이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8월 7일 정부가 국무

회의를 통하여 통과시킨,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하 인권계획)이 될 것이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독소 조항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성 평등(동성애) 실현,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등, 국민의 윤리와 도덕,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또 국민 기반적 인권계획이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는 인권계획에 반발하는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학부모단체 등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독소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인권은 윤리 도덕에 기초하고 공약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인권을 묵살하고 특정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계획이 현 정부에 의하여 계속 추진되고, 2년 후 돌아오는 총선에서 여권이 다수를 차지하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동성애·동성혼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인권 자유 국가가 아닌, 인권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각 교단의 이번 가을 총회에서는 이 인권계획에 대한, 한국교회의 분명한 반대 입장과 결의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제2의 신사참배 범죄와 같은 악법을 막아야 한다.

지금 성 소수자의 인권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인권’이면 헌법도, 법률 체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신장(伸張)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계획에 나타난 내용은, 인권이란 허울 속에 섰는 국민들과 종교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건전한 언론(言論)을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고, 단호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

장신대는 동성애자가 목사직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방안이 있습니까?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장반동) 성명서

장신대는 교수평의회 입장문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장반동)는 결코 장신대나 통합교단 또는 장신대 구성원 중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반대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장신대 구성원 중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보적이거나 중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단의 공식 입장에 비추어 맞지 않음으로 장신대의 공식적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신대 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통합총회와 장신대의 공식 입장에 부합합니다.

그런 장치와 조치가 없다면 공허한 선언에 그칠 뿐이고 지속적인 오해의 소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장반동은 동성애는 죄로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미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교회가 사람으로 품어 궁극적으로 모든 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 죄에서 교정되고 치료되도록 도와야 함을 인정하는 점에서 장신대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장신대 학생의 경우는 교회(교회)의 추천과 위탁을 받아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 목사후보생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경우와는 갈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장반동이 제기하는 문제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품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특수한 직분자가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이거나 동성애를 묵인하는 자일 경우 이를 용납해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학교는 교회를 섬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교회와는 달리 교회직분자에게 준하는 믿음과 경건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장신대는 신학생들에게 복음과 성령과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경건과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에게만 입학할 허용해야 합니다.

임 총장은 장신대에서 진동성애 독재를 하려는 것입니까? 장반동이 총장 어린 마음으로 장신대가 지난 2년동안 진동성애 학교운영을 해 온 것을 비판한 것을 장신대 위해세력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는 중세 교황청의 오만한 태도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장신대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선지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임 총장은 총장 이전에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

사설

‘북 핵 폐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 협정과 관련한 행동이 도마에 올랐다. 물론 이미 예견했던 일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느낌이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오랜 반목과 질서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평화모드가 정착되는가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체적으로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가 압박과 제재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을 전격 철회한데 이어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발표는 북핵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관련 행동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없이 오히려 핵 무장 강화에 더 힘을 싣고 있는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자 미국이 냉정을 되찾고 압박과 제재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미 대외정책국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면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12월엔 연합공중훈련이 예정돼 있고 내년 3월 카리콜라 훈련도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교류협력에 더욱 주력하는 듯하다. 남북경제협력 기금을 5000억 원 이상 배정하면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을 위한 경험 드라이브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물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와의 대북 공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지원과 협력도 한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협회는 불가능하다.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압박 강도를 높여 핵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남북 협력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한·미 연합훈련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훈련으로 북핵이 해결된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지를 위해 지속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때다.

망국적 인권정책 막아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악법 소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불통(不通)으로 통과시켰다.

이 NAP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 소지를 담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의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민비가 지난 8월 27일 국회의 원외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 단체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 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교

계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수호전 주요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종교도 동참했다. 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비른성분회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 그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들어서 지적해온 시민 단체들이 참여했다.

국민비는 정부가 NAP 가운데 악법과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단체, 시민 단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망국적이고, 조국의 미래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잘못된 인권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 것이다.

나쁜인권NO! 독소조항OUT! 동성애옹호NO! 차별금지법OUT!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입문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9월 11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웅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